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2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12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사업팀 참여자 사례발표 (12.06)

한 해 동안 월간소식지 '사회복귀지원 이야기'에 소개되었던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자 9층 소망 정원에서 사례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8명의 사례관리 케이스를 통해 참여자, 가족의 욕구에 따른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내용을 해나행에 공유함으로써 사회사업팀의 역할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사)나행동 혜임당주거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하여 주거환경개선의 중요함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12.07)

이번 달에는 히든싱어 남진 편에서 우수상 영광에 빛나는 해운대 남진, 전찬영 강사님(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과 함께 첫 번째 토요일,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함께 노래를 배우고 다 같이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웃음치료는 '웃음'이란 즐거운 행동을 통해, 세로토닌과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웃는 웃음이라도 재활치료처럼 매일 연습하다보면 재활치료의지 향상은 물론 신체와 정신, 앞으로의 사회적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입직원 4기 수습수료식 (12.27)

3개월 수습기간동안 이전의 나, 성장한 나, 앞으로의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4기 수습직원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4기에는 총 9명의 신입직원 수습수료자가 참여하였고,
나의 성장과 더불어 함께 참여한 동료들의 성장과정을 통해
해나행 가족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응원하였습니다.

'함께 가치있는 한걸음, 만나서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재활생활 교육 프로그램 (12.11 / 12.18)





준비된 퇴원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안내 및 주거환경개선
(사회사업팀 김지헌 팀장)

참여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안내하고 및 실제 진행한 주거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와 가족의 욕구, 상황에 따라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시를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다양한 복지제도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주거, 돌봄, 이동, 건강관리 및 일상생활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귀의 첫걸음, 가정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준비된 퇴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과 보조공학기기 활용
(재활코치팀 서인석 주무)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직업과 보조공학기기 활용에 대한 특별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보조공학기기의 정의와 여행을 갔을 때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 종류 및 보조기기센터에 대해 함께
알아 가보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재활치료 여정에서 질병과 장애에
대한 이해, 인식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장애수용 과정에
함께하며 일상의 행복을 빠르게 되찾아 나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재활프로그램 '슬기로운재활생활'에 참여하여
재활치료 의지를 다져나가고 준비된 퇴원을 위한 과정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휠체어스쿨 (12.16)

오늘은 오랜만에 오신 참여분과 새로 오신 참여자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휠체어기초가 필요하다고 생각된 참여자 3명은 휠체어 밀기연습을 하였습니다.

이OO님은 실내 및 전동을 사용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연습을 하였습니다. 꾸준하게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계신 김OO님은 Wheelie를 하는 자세가 안정적이셨고 프로그램을 참여하실 때 하나라도 더 배우시려는 모습이 늘 보이셔서 좋았습니다. 유OO님과 함OO님은 휠체어에 전동장치(토도)가 장착되어 있어 앞바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쉽지는 않았지만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Wheelie를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쓰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밖으로한걸음씩 (12.04)

유OO님은 연령제한이 풀려서 운전면허증을 바로 취득하기 위해 남부운전면허시험을 다녀왔습니다.

안전교육이후 적성검사와 운동능력평가를 받고 필기시험합격이후 장내기능교육까지 받았습니다.

12월에 3회 장내기능교육을 받으셨지만 시험까지는 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핸들을 돌리는 게 쉽지 않아서 시험까지는 어려울 거 같았습니다. 핸들을 충분히 잘 돌릴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진 후 2월 중 일정을 다시 조율하려고 합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16대 꿀꺽왕 시상식 (12.23)

연하파트에서 주관하는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T입니다! 12/23일 월요일 17대 함○훈님 꿀꺽왕 시상이 있었습니다.

식사준비를 하시던 중 저희들을 환한미소로 반기시며 시상과 더불어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91세 늙은이를 오랜시간 치료해줘서 고맙고, 치료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본인을 축하해주러 왔는데 빈손으로 보내서 미안하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훈님이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대구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먹는 즐거움을 알아갈 참여자분을 만나신다면, 많은 응원과 축하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연하치료를 담당해주신 작업치료사선생님과 시상을 도와주신 6병동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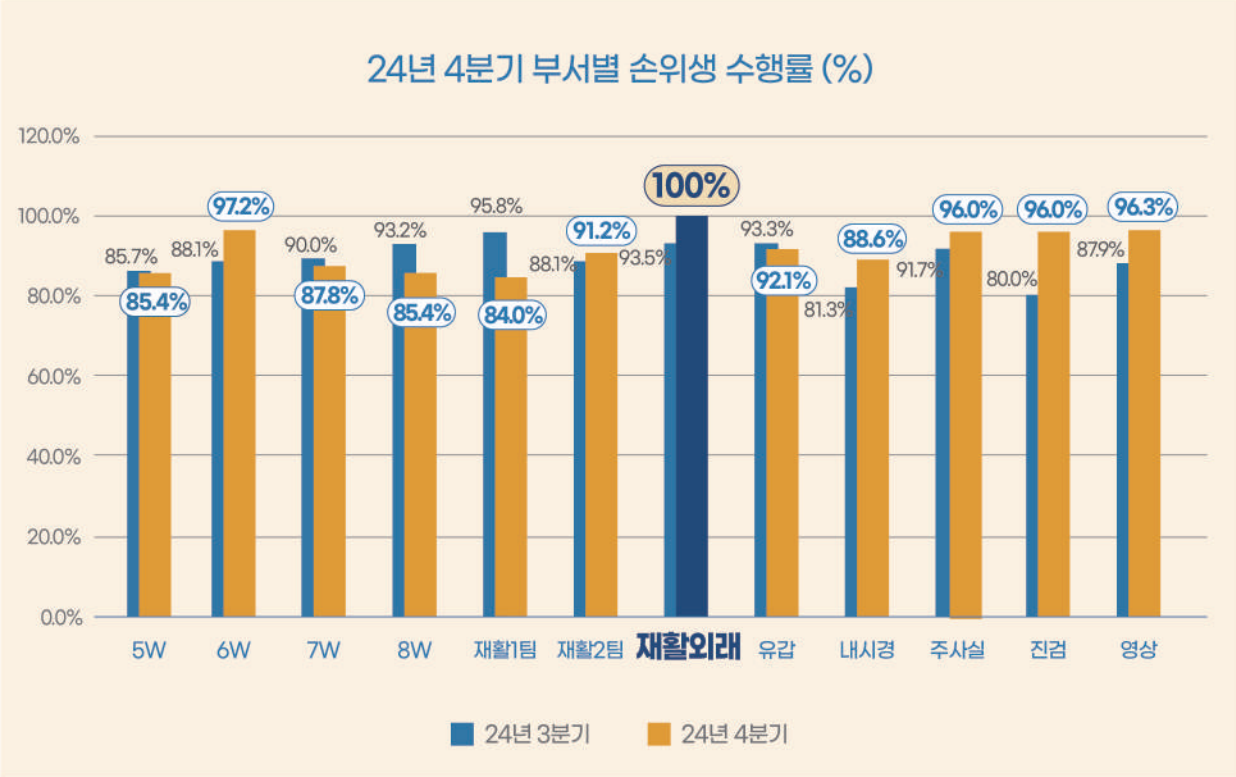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12.06)

매달 한번씩 다가오는 행사인 6층 일상재활센터에서 주관하는 낮병동 월간 우수 자립왕/출석왕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번달 우수 출석왕에는 이○찬, 류○태님이 수상하셨고, 우수 자립왕에는 서○조, 송○자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자립왕/출석왕 시상식은 낮병동 참여자분들의 재활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이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시간입니다. 이 날 많은 분들의 축하와 기쁨이 나눠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든 참여자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재활외래팀’ 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 (12.19)

분기별 손위생수행률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4/4분기 손위생 우수부서에 재활외래팀이 100%로 우수부서에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은 참여자분과 고객들의 감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손위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손위생을 했는 지 물어봐주십시오~ 감염예방을 위한 손위생은 항상 준비되어있습니다!



2024년 12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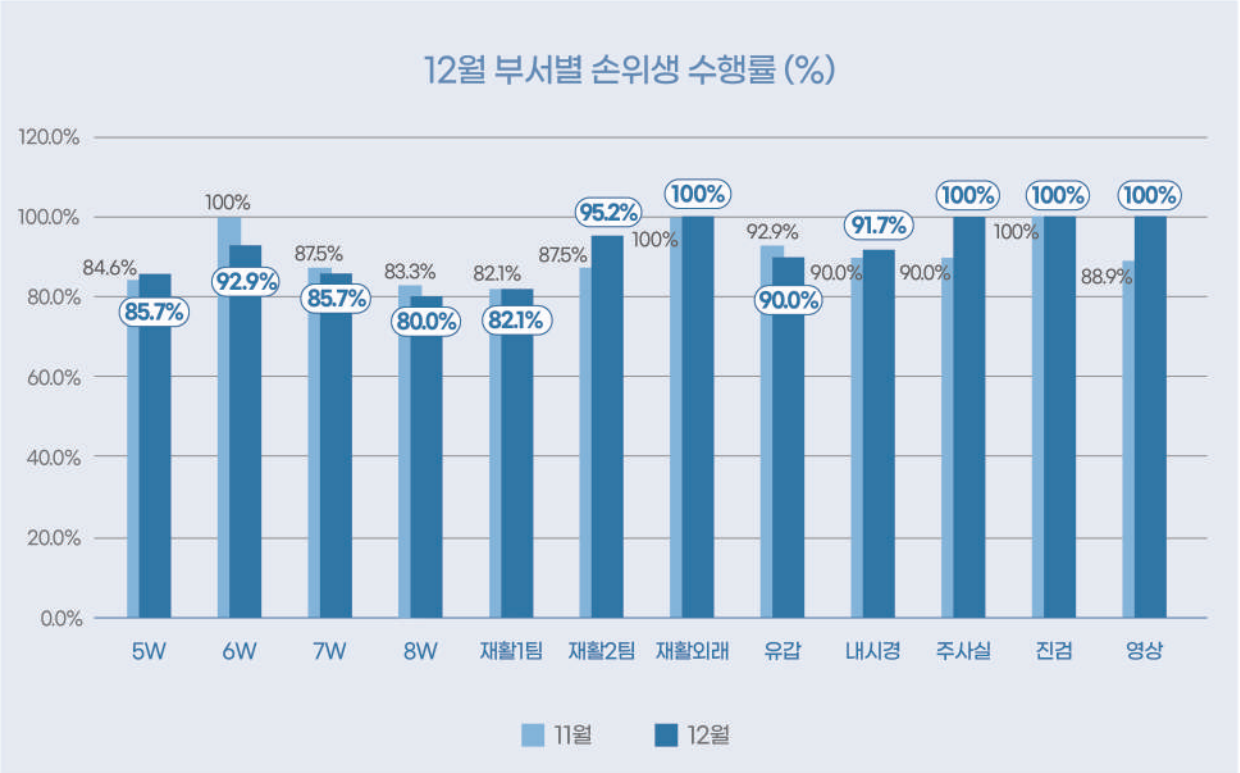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12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11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63	147	90.2%	**+1.0%**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4년 4분기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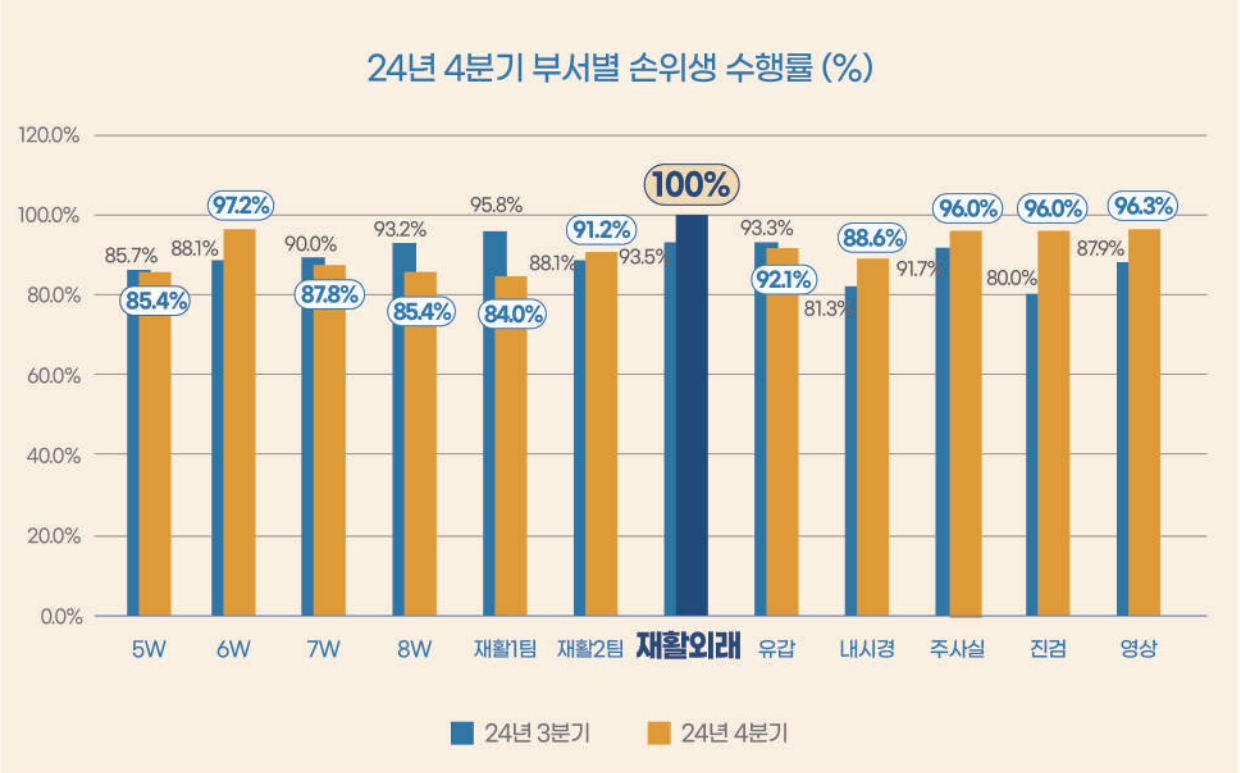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10월 01일 ~ 2024년 12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478	432	90.4%	+ 0.8%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복귀지원이야기 열 한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11

첫 번째 전원, 자택복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회사업팀에 방문하다

이○○님은 뇌경색 발병으로 타병원에서 회복기 재활치료를 마친 후에도 재활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본원에 방문하셨습니다. 사회사업 상담 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종으로 의료비 부담감은 없으나 자택복귀 의지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따님께선 이○○님이 자택으로 복귀하기 힘들다는 생각으로 사회복귀계획 수립에 대해 거부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참여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복귀에 대한 생각을 천천히 정리할 수 있도록 수시 상담을 진행하였고 휠체어 대여비 부담감을 호소하여 노인장기요양등급 복지용구 제도를 안내드리고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닫혀 있던 마음을 살펴보다

이○○님은 발병 후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감을 느끼셨고 재활치료가 끝난 후 병실 침대에만 누워계셨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인 이벤트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이○○님은 매월 1회 이벤트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직접 만든 작품을 사랑하는 손자, 손녀에게 선물하는 즐거움을 느끼셨고 집단상담 마음톡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타인과 소통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통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용기를 얻으셨습니다.

퇴원 후 진행된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 끊임없이 사회복귀 여정에 동행하다

이○○님, 따님과 1년간 수차례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자택복귀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 목록 및 퇴원 전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함에 끝에 따님께선 마침내 최종적으로 자택복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전, 참여자 기능에 맞춰 자택 내 안전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택 내부 사진을 받아 유선으로 가정환경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큰 고민인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 외 안정적인 자택복귀를 위해 해운대구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재가의료급여사업 신청을 준비하였으나 이○○님께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는 재가의료급여 사업과 중복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체제로 해운대구에 On 보살핌 사업의 퇴원환자 안심돌봄서비스와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의뢰하여 해운대구 보건소 방문재활 및 방문간호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꿈꾸던 자택으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님이 자택으로 퇴원 후, 보호자는 해운대구청 재상담을 통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하시기로 마음을 바꾸셨단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긴급히 해당 동 의료급여 관리사와 함께 재가의료급여사업 케어플랜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회의를 통해 의료, 영양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이○○님은 더욱더 안전하게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참여자와 따님께선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사회사업팀에서는 지속적인 상담, 자원 연계를 통해 참여자가 가정 및 일상에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님의 안전한 자택복귀를 응원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대상</td><td>성별</td><td>나이</td><td>보호유형</td><td>대상질환</td><td>발병일</td><td>입원기간</td></tr>
<tr><td></td><td>여성</td><td>70대</td><td>급여 1종</td><td>뇌경색</td><td>2022.11.</td><td>2023.06 ~ 2024.11</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독거 가구
■ 주보호자 : 딸
■ 가족 지지체계 높음</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장기 입원으로 인한 우울감
■ 자택복귀 의지 저하</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생계급여 수령</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아파트
■ 주거환경 : 승강기 있으며 참여자 기능상 안전바 설치 필요</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 욕구
■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 욕구
■ 자택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욕구</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자택
■ 자택 사진 참고하여 유선상 가정환경 평가 진행</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상담
■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PG
■ 정서지원 : 이벤트, 마음톡톡 PG</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해운대구 재가의료급여사업
- 의료지원 : 본원 외래치료 연계
- 영양지원 : 엄마의 마음 반찬서비스 주 1회 제공
■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보건소 CBR사업 연계
(방문간호, 방문재활)</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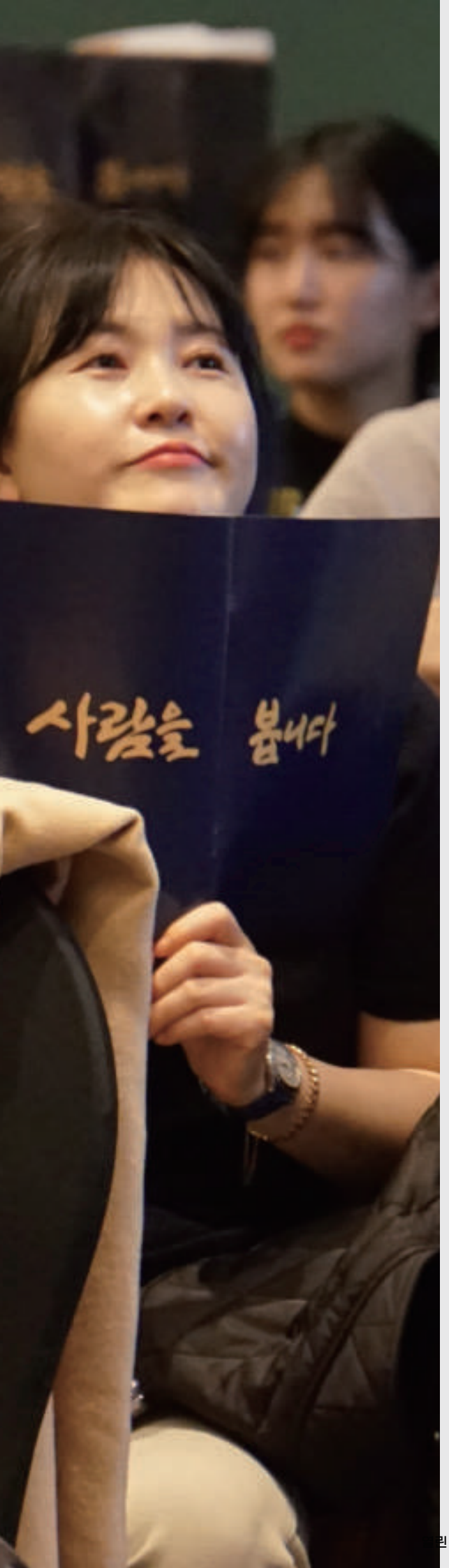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2024 당신은 무엇이 깊어졌나요?'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개원 13주년 기념 및 송년회 (12.20)



1년 동안 함께 수고한 우리 해나행 가족, 해나행 구성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축제와 같은 분위기와 함께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90분간 뷔페 식사로 1부 행사를 먼저 시작한 후, 2부로 오프닝 영상과 함께 축사, 병원장님의 개회사가 진행되었고, 병원의 핵심가치상, 나이테상 시상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해나행의 모든 것을 영상으로 감상하며 올 한해를 되돌아보았고, 새로고침과 감염관리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입사한 신규입사자와 5년, 1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영상, 마무리 영상을 감상하고 기념 촬영을 하며 2부 행사가 끝이 났습니다.

3부는 베스트 드레서와 베스트 포즈에 대한 시상이 현장 투표로 진행되었고,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며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깊어졌던 2024, 올 한해 우리 병원이 어떻게 더 좋아지고 성장해왔는지 알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깊고 의미 있었던 2024년,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장기근속 시상 5년
재활
재활치료
장기근속 시상 10년
통합지원실
경영지원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송년의 밤

크리스마스 스탠딩 파티 (12.24)



12월 24일 사회사업팀에서 크리스마스 스탠딩 파티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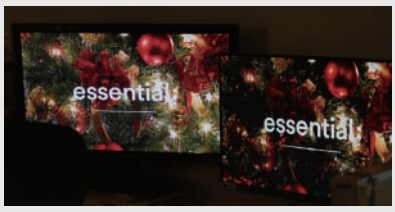
총 38명의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께서 찾아주셨고,
행복미니도서관, 사회사업팀을 활용하여 파티 공간을 조성하고 음료와
다양한 핑거푸드를 나누어 먹으며 포춘 쿠키에 새겨진 행운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행복한 기운을 불어넣어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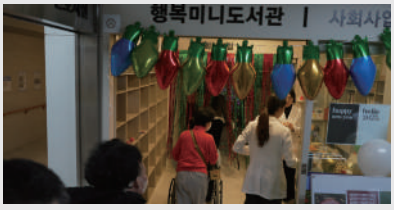
내년 연말 프로그램을 기약하시는 말씀에
'그때는 퇴원하셔서 더 즐겁게 보내셔야지요!' 하니
'아 참, 퇴원해야지!'

소소한 대화로 함박웃음을 나누고 서로를 향한 격려, 덕담으로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냈습니다.

GOODBYE 2024, HELLO 2025!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12.27)



재활간호팀(5W) 성혜린 주무



재활치료1팀 신유라 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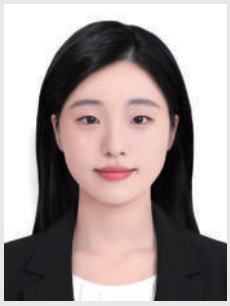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12월의 신규입사자



영양팀 정민지 영양사



HR팀 박수진 팀원



원무팀 오희진 팀원

손이 붙는 말들을 좋아한다.

손을 거치다.
손을 쓰다.
손에서 자라다.
손에 익다.
손을 내밀다.

이런 관용구 속 손에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좋다.

_김민지《마음단어수집》(사람in)



재활간호팀(5W) 노승애 간호사



원무팀 김태완 팀원



재활간호팀(5W) 강소영 간호사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2.09)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웃음치료 프로그램과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해주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으며 ‘무드등 감사패’와 ‘대상포진 예방 접종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달하여 그동안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본원 3층 ‘(사)나행동 도너월’에 8년 이상 함께 해주신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성함을 등재함으로써 동행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어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가치 있는 한걸음, 동행에 함께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12.17 / 12.27)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자원봉사자께서 참여자를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재능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79명이 신청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열 세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팥칼국수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 24절기를 그렇게 따지게 되요...ㅎㅎ
그러니깐 이번 동지에 팥으로 뭐 해주나요? 이왕이면 팥 칼국수로 해 주세요” 라며

세시풍속에 능통해 졌음을 알림과 동시에
본인의 기호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신 참여자분의 요청에 따라
이번 달에는 팥 칼국수를 준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뭉근히 끓인 팥을 갈아,
곱게 체에 내리고,
또 다시 팔팔 끓여 준비하고,
여기에 준비된 칼국수 면을 합체하면
별미 중의 별미인 팥 칼국수가 완성됩니다.

부~드럽고, 달달한 팥 칼국수의 팥에는,
예로부터 팥의 붉은 색이 양색(陽)이라 악귀를 쫓고,
몸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러한 팥을 이용한 음식에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가족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가 준비한 팥 칼국수에도
참여자분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영양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동짓날이 지나면 겨울도 더 깊어집니다.
깊어진 겨울,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12.24)

“일상적인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항상 다니는 길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는 곳을 매일 여행지처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술가가 되니까”

_정세랑『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한 순 없어』2021.p.95.

일상적인 것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고,
일상적인 곳에서 여행지처럼 경험하면
예술가는 아니더라도 한 영역에서 예술의 경지에 오르지 않을까요?

일상적으로 먹던 것에도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좁은 공간의 북적북적함을 유명 관광지의 소란스러움으로 여기며 관대하게
넘기실 수 있는 여러분은, 미식의 영역에서 예술의 경지에 오르신 겁니다.

예술의 경지에 이미 오르신 분들이나,
앞으로 오르실 분들을 위해 파라다이스 뷔페에 도전장을 내민 영양팀이ㅎㅎ
올해 마지막 특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버섯크림리조또(발음 조심하세요~ㅎ)를 이븐하게 준비 하였으니,
섬세하게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섬세하게 느끼면서 뭔가를 발견한다면,
예술의 경지에 한 발작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올해의 마지막까지 본인이 자신 있는 영역에서
예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한 애씀을 다하길...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



홍보팀장의 '브런치' 서른 두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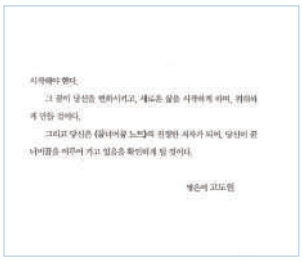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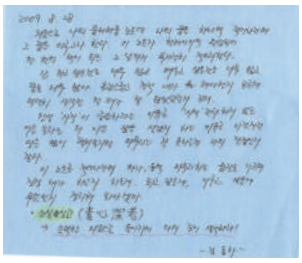
새해다짐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 당무유용(當無有用),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지만
> 그릇은 그 속이 '비어있음'(無)으로 해서
> 그릇으로서의 쓰임이 생깁니다.
> _신영복《처음처럼》(돌베개)

2024년도 마지막 일요일이었다. 연말이면 아내는 집 정리로 분주하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다른 무언가로 채워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미련 없이 버리라고 얘기한다. 지난 1년간 각자의 서랍을 꺼내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 집에서 서랍공간을 소유하지 않은 나는 애꿎은 책장 속에 꽂힌 책들을 만져보며 읽지 않을 책들을 정리해본다. 그러다 책장 가장 아래에 꽂힌 채 15년을 잠든 노트 한권을 발견했다. 결혼 전 구매해서 나의 생각과 다짐을 적었던 '꿈너머꿈 노트'라는 책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모양이다. 30대 초반에 쓰다만 글을 읽는데 어찌나 낯간지러운지 모른다. 적힌 날짜를 보니 결혼날짜(이듬해 1월)를 잡아 놓고, 결혼 준비로 분주해질 무렵인 듯 보인다. 그 분주함 속에서도 혼자 생각하고, 혼자 다짐하고, 혼자 '꿈'이라는 글자를 동경했나보다. 웃기다. 그 상황이 웃기고, 지금 이 글을 읽는 내가 웃기다. 기록이 기억을 이긴다는 말을 여과 없이 보이는 흔적이다.

> 연말이 좋은 이유는
> 분위기에 휩쓸려서라도 희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서.
> _김신지《제철 행복》(인플루엔셜)

연말이 되면 또 어김없이 새해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시간들을 보낸다.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할 수 있을게 무엇이며,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젊은 시절만큼의 거창한 꿈은 아니지만, 어떤 일이든 흐르는 게 아니고 쌓이는 것이라는 것을 삶의 경험에서 배웠다. 수많은 책들에서는 당장 실천하고, 바로 실행하라고 알려주고, 그게 정답이더라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알지만 연말의 분위기에서 하루 이틀을 유예하는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며 애써 나와 타협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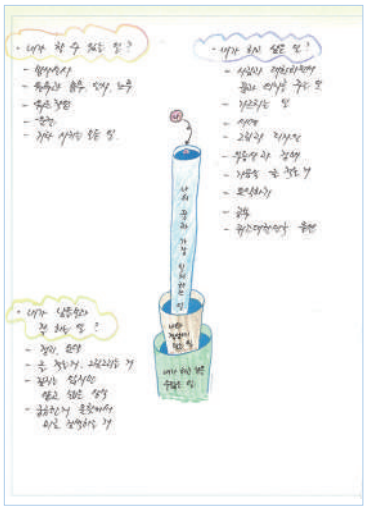
더 많이 책읽기, 폰과 멀리하기, 명언필사, 글쓰기, 새벽등산, 집에서 운동, 저녁 산책, 24절기와 관련된 일상 관찰, 술 끊기(에서 줄이기) 등 지키지도 못 할 약속을 아이들에게 선언하고 나면 아내는 또 '병이다 병'이라며 웃음 섞인 핀잔을 준다. 대부분이 1년 내내 다짐하고 실행하며 실패하기를 반복했던 것이기에 그리 놀랍지도 않다.

몇시간 뒷면 어김없이 또 새해가 시작 될 것이다. '초심'이라는 단어와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공존하는 한 주가 시작될지 모른다. 첫날의 다짐,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 갈 수 밖에 없음을 안다. 허나 완벽을 목표로 삼아 부족한 것을 모두 채우려 하면 불안과 초조가 배웅 나올지 모르기에 조금은 틈을 주고 비움으로 더 좋은 것을 채우는 여유를 잊지 말아야겠다.

> 세모에 지난 한 해 동안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나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자르고, 무엇을 잊으며,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생각해봅니다.
> _신영복《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돌베개)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나는
뱃살을 자르고,
알콜을 잊으며,
결심을 간직해야 함을
잊지 말자.



(작가들이 원고를 마감하듯
소식지 마감 하루 전날에
쓴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브런치가
없어지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4년 12월 31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